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06. 07.(금) 배포	사진	3	자료	1	매수	1
담당부서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 (생활안전팀)	과장	이기봉 (031-8021-0300)				
		팀장	송해연 (031-8021-0330)				
		담당자	박주경 (031-8021-0334)				

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 피해 저감 사례 및 대국민 인식조사 참여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유무... '극명한 차이'를 보여!



△ 소화기 활용 자체진화에 성공하여 화재 피해 저감 사례(우측 아래)(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를 홍보하며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한 추진 효과성 검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2009년부터 취약계층 및 화재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을 무상 보급하는 등 용인시민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현재까지 관련된 소방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에 추진하는 대국민 인식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택용 소방 시설 무상 보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바탕으로 소방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도 양질의 소방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앞서 지난 2월 기흥구 동백동 소재 한 공동주택의 11층 작은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관계인의 침착한 대처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의 사용으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가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안기승 서장은 “소방에서 펼치는 정책 방향은 항상 도민의 안전을 향해 있고, 그 첫걸음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정환경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